

외대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하자

우리학교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지 한 달이 흘렀다. 파업 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학교 당국은 세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학교 당국은 기존의 입장만을 반복하며 교섭을 또 다시 결렬시켰다.

학교는 노조와 대화는 제대로 임하지 않으면서 학생 전체에게 전자메일을 세 차례나 보내며 파업의 정당성을 공격했고 총학생회는 파업 농성장을 침탈해 조합원에게 폭행, 폭언을 가하고 파업장을 점거하는 등 물리력으로 파업 파괴에 나섰다.

파업의 진정한 진실

애초에 외대 노조 파업은 학교 당국이 과장급 이상 조합원 48명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이들이 조합을 탈퇴하기 전까지 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조원의 가입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학교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2면 기사를 참고) 학교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48명 조합원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꼬투리를 잡



는 것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당국은 황당하게도 노동조합장이 직원 인사권을 갖고있고 자신들은 약자라도 된 것처럼 업살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위선일 뿐이다. 얼마 전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여

성 노동자 5명을 해고 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 모든 승진, 전보 등 인사 사항은 학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참가는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박철 총장은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 간 학교를 위해 헌신해 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뿐만

☞ 2면에 계속

진보 언론인 홍세화가 말한다 학생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우선 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참 착잡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실 제목 같은 플래카드를 들어오면서 봤습니다.

지하철 노동자가 파업을 할라치면, 바로 조선일보에서 하는 얘기가 '시민의 발을 불모로' 이런 얘길 주로 하죠. 학교에 들어오면서 '학습권을 불모로' 라는 플래카드를 보면서 그것이 바로 조선일보와 같은 그런 세력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총학생회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에 참 답답이랄까요. 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자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략)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8시간 노동제도, 또 일부 갖고 있는 정규직도, 또 나아가서 노동3권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파업권이라는 이것이 사회적 약자들의 최후의 투쟁수단으로서 선배 국제 노동자들의 투쟁의 과정의 산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략)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 사회에서 파업하고 싶어하는 노동자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 사회에서 누가 질서를 교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질서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사회정의를 유린되는, 사회정의를 그야말로 사회 불의로 대체되면서 그것을 관찰시키기 위하여 질서니 안보니 경쟁력이니 이런 논리가 제기 된다는 것을 동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략)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 우리 자식들에게는 조금 더 사회 정의와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를 남겨줄 수 있도록 (외대 노조)여러분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전선에서 몸소 싸우고 있다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함께 뽀뽀 뭉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간단한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동지 여러분의 투쟁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연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뭉치고 싸웁시다!

* 이 글은 홍세화씨가 4월 27일 외대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며 파업 집회에서 한 연설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총학생회와 총장의 계속되는 거짓말

☞ 1면에서 이어짐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학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정한 인사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04년도에 노동조합이 투쟁을 통해 이룬 “향후 5년 간 모든 비정규직 직원의 조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의 성과를 무로 돌리려 한다.

총학생회도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으며,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2004년 단체 협약 내용을 문제삼으며 학교가 비정규직을 마음껏 쓰고 마음껏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반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은 비단 외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이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0% 이상인 한국사회에서 정규직 노조가 나서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룬 외대 노조의 사례는 전 사회적인 귀감이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반은 실업자로 남고, 1/4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싸우고 있는 외대 노조의 투쟁은 바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악몽

비정규직은 늘리고 등록금은 인상해서 “경쟁력 있는 사학 BIG5”에 들겠다는 총장의 꿈은 평범한 학생과 직원들에게는 악몽일 뿐이다.

박철 총장은 “등록금 1500만원” 시대가 필요하다는 고대 어윤대 총장을 벤치마킹하며 경쟁력 강화 논리를 들먹이고 있다. 박철 총장은 학생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눈엣가시인 노조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리고 총학생회는 학교와 완전히 한편이 되어 노조 파업 파괴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학교의 비민주적인 학사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노조를 파괴하려는 총장에 맞서 외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하며 노동 탄압에 열을 올리던 고려대학교 당국이 최근 보건대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저항하던 학생 7명에게 출교 처분을 한 사례에서 보듯 직원들을 향한 학교 당국의 칼끝이 학생들을 향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학생과 직원 모두 학교 당국의 비민주적 학교 행정의 피해자인 만큼 학생과 직원이 함께 싸울 때 학생과 직원 모두 승리할 수 있다.

외대 노동자들이 학교 당국에 맞선 이번 투쟁에서 노조를 잘 방어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이익이다.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직원들로부터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는다. 직원들이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서 근무해야만 학생들도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부모님 중엔 노동자인 사람들이 많다. 개별 사업장의 노동자 투쟁이 활발해져서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높아진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임금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수 학생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학생들 중 다수는 졸업 이후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자가 된다. 더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것은 미래 노동자가 될 많은 학생들의 이익과도 연결되어 있다.

외대는 지난 1998년 학생과 직원들이 함께 투쟁해 비리 재단을 몰아낸 소중한 연대의 전통을 갖고 있다. 이런 연대의 전통을 되살려 학교 당국의 전횡에 맞선 외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자!



각목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총학생회 지지자들

●총학생회는 노조에 보내는 공문에서 “학생들이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따라온 한 노조원이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무도 밀지 않았는데 조합원이 혼자 넘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군사독재 시절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을 연상케 한다.

57세 김00 조합원은 “총학생회 점퍼를 입은 한 학생이 ‘넌 뭐야!’ 라고 하며 두 손으로 날 밀쳤다. 이번엔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크게 넘어졌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 이 조합원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심지어 그 옆에 있던 총학생회장은 ‘아저씨! 이거나 가져가요!’ 하면서 돌돌 말려진 비닐을 부상당한 조합원에게 던졌다.

●총학생회는 대자보에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파업 관련한 학내 사태가 종결되는 그 즉시, 등록금 관련해서 행동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쓰고 있다.

→이것은 뻔뻔한 거짓말이다. 이미 총학생회는 학생들 몰래 등록금 11.4% 인상을 받아들였다.

파업 이전에도 “등록금 동결같은 상투적인 구호는 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지지했다.

총학생회는 확대운영위원회 자리에서 박철 총장의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강변한 글을 나누어주면서 이전에 학생들이 벌였던 등록금 인상반대 운동을 “폭력적”이었다고 매도하는 등 등록금 인상반대 운동을 발목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랬던 총학생회가 파업 때문에 등록

금 투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학우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다.

●총학생회는 아직도 각목이 단지 “팻말대”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목을 정말 팻말대로만 사용하려 했다면 팻말대에서 팻말이 떨어졌을 때 왜 팻말을 들지 않고 팻말대로 쓰였던 각목을 들고 있었을까?

총학생회가 단지 “팻말대”였다고 주장하는 각목의 길이는 대략 160cm, 한 손에 다 잡히지도 않는 두께다. 이 각목으로 조합원들을 밀치고, 땅을 “탕탕!” 치며 위협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이 각목이 과연 “팻말대”일 뿐인가?

●박철 총장은 “(외대 직원들이) 국내 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봉급과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1.9%의 봉급 인상과 복지 혜택을 위해서 파업을 시작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가 48명 조합원의 탈퇴를 강요하며 단체 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임금인상을 요구하다가 파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임금인상 요구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올려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학생들도 임금 인상을 지지해야 한다.

노조는 현재 이조차도 양보해, 임금은 동결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학교는 전혀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진정한 ‘기득권 세력’은 재단과 총장을 비롯한 소수의 보직교수들이다.

학교측의 근거 없는 직원 48명 노조 탈퇴 요구

학교는 과장급 조합원 48명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이들이 조합을 탈퇴하기 전까지 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방어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꾸린 단체이다. 조합원 가입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 학교가 조합원의 가입 자격을 문제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학생들의 권익을 위한 학생회의 가입 범위 및 운영을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과 꼭 같은 이치다.

실제로 학교측 교섭위원인 이정 교수 스스로도 자신의 저서인 ‘노동법 강의’에서 노동조합에서 “‘외형상’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없으면”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게다가 보직 교수의 지시에 따라 일해야 하는 직원들은 과장급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보다는 노동자에 더 가깝다.

노조원의 범위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외대 노조는 파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48명 조합원의 가입 범위도 단체 교섭 안건으로 올려놓기로 양보하고 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학교는 제대로 된 논리를 대지 않은 채 48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 결과가 나오는 두 달 뒤까지 교섭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며 아예 교섭 자체를 거부하여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총학생회장 임태용과 전 부총학생회장 오일환의 우파적 행태

학우들을 경찰에 팔아 넘기기

작년에 이들은 총학생회에 당선되자마자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외대 학생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다.

작년 1월 9일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실에서 주체사상 문건이 발견되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6인의 외대 학생들은 부당한 경찰의 출두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외대 학생 80% 이상이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에 찬성(외대 학보 여론조사)하는데도, 학생들의 대표라는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경찰에 팔아 넘긴 만행은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민주적 총장 선출 훼방

작년 총학생회는 학생, 교수, 직원이 함께 민주적으로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다수 학생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총장 선출을 위한 운동을 파괴했다.

민주 총장 선출을 요구하며 학생들은 서명운동, 선전전, 집회 등을 진행했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사실상 민주적 총장 선출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며 노동조합에게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좌절시켰다.

덕분에 박철 총장은 학교 밖에서 삼삼오오 흩어져 몰래 진행된 교수들만의 '도둑 투표'로 총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

비민주적 등록금 인상 합의

지난 4월 18일, 총학생회를 향의 방문한 학생에게 전 부총학생회장인 오일환은 "총학생회는 올해 학교가 건물을 많이 지어야 하기에 등록금 인상안을 받아들였다"며 속내를 터놓았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투쟁을 하겠다며 입발린 거짓말을 늘어놓더니 뒤로는 학교의 11.4% 등록금 인상을 받아들였다.

총학생회는 작년에도 학생들과는 어떤 합의도 거치지 않고 4.47% 등록금 인상을 받아들였다.



파업노동자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임태용과 오일환

노조에 대한 적개심

현 총학 간부들은 노조에 깊은 적개심을 드러내 왔다.

2004년 노조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반대, 2005년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노조 파업' 파괴 대체인력 모집 선동, 올해 노조 파업장난등 등 노조 파업 파괴의 현장에는 항상 그들이 있었다.

파업 농성장 폭력 침탈- 파업 파괴 행위

4월 11일 총학생회는 파업 농성장에 들이닥쳐 50세의 나이 지긋한 조합원들을 각목으로 밀치며 폭행하고 "개새끼", "씨발"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한 57세 조합원은 총학생회 쪽 학생에게 밀려 넘어져 허리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총학생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폭력으로 짓밟는 것도 모자라 4월 27일에는 노동자들의 파업 장소를 점거해버렸다.

대자보 찢어 버리기 -표현의 자유 탄압

총학생회는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대자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도 총학생회장은 당당하게 "대자보를 찢는 것도 의사표현의 한 방식이다"고 말한다. 4월 11일 사태의 진실을 알리고 총학생회를 비판한 <다함께 외대모임>에

게는 계속해서 리플릿을 뿌리거나 대자보를 붙일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총학생회의 행동 때문에 외대 내 민주주의는 군사 독재 시절로 후퇴한 듯하다.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 무시

총학생회는 자신들이 불리할 경우에는 어떠한 민주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작년에 등록금 4.47% 인상을 어떤 회의의 체계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3월, 당시 부총학생회장이었던 오일환이 제적되자 전학대회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한 날치기 투표를 통해 그를 재신임시키려 했다. 전학대회 대의원들은 이 투표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며 재투표할 것을 요구했으나 총학생회는 막무가내로 개표를 진행했다.

오일환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 덕분에 개표결과 그의 재신임 건은 부결됐지만,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는 자신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민주주의를 내팽개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탄압, 등록금 투쟁 회피, 민주적 총장선출 운동 훼방,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의 파업 파괴 등이 총학생회가 해온 일이다.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외대 학우들은 지금 당장 총학생회에 반대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학교와 총학생회의 황당한 말말말

"총학생회는 올해 학교가 건물을 많이 지어야 하기에 등록금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 무심코 진실을 털어놓은 오일환 전 부총학생회장

"(11.4%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이 없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설득시킨 결과 무리 없이 따라왔다."

- 중운위가 등록금 인상을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총학과 밀실했던 사실을 발설한 박철 총장

"대자보를 찢는 것도 의사표현의 한 방식이다."

- 표현의 자유를 조금도 보장할 생각이 없는 임태용 총학생회장

"어떻게 이게 팻말지대대로 쓰일 수 있습니까?"

- 스스로 팻말지대대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농성장 침탈에 기뻐한 한 학생

"직원 노조는 ... 학생들의 서투른 작은 저항(에) ... 폭력이라는 이름을 덧씌웠다"

- 폭력과 욕설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대자보를 갈기갈기 찢어버린 총학생회가 쓴 시의 한 구절

"안병만 (전 총장)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그 개 같은 자식!!"

-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합의한 전 총장에 극심한 반감을 드러내는 소병국 총무처장

오일환은 옛 비리재단을 그리워하는가?

오일환 전 부총학생회장은 '직원 선생님들께 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98년 재단 분규가 학교가 도약하는 전기가 되기보다 오히려 학교 발전을 저해하고 말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오일환 전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해 현재 총학생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리재단 후 새롭게 구성된 공영재단에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들은 98년 재단 정상화 투쟁 이후 공영재단이 출범할 때부터 그 성과를 인정하고 지지하기 보다는 "나눠먹기식"이라는 등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등 만지걸기에만 비꼰다.

공영재단이 완벽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이것이 98년 재단 정상화 투쟁의 성과이고, 박승준 등 개인에 의해 사유화된 채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이전 재단에 비해서 진일보한 형태란 점은 학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부총학생회장을 두 번씩이나 역임했던 오일환은 외대 학우들 스스로 일궈낸 98년 재단 정상화 투쟁의 성과를 두고 "학교 발전을 저해"했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전의 비리 재단이 지금의 공영재단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외대 학우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 오일환 전 부총학생회장은 다시는 옛 비리재단을 추억하는 따위의 말을 입에 담지 말길 바란다.

학교 당국의 11.4% 등록금 인상안을 받아들이는 총학생회!

- 이들이 '학습권'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총학생회는 대자보에서 “파업 관련한 학내사태가 종결되는 그 즉시, 등록금 관련해서 행동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총학생회가 등록금 투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노조 파업 때문이라고 핑계 대고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이미 학교와 등록금 인상을 합의해 놓고는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총학생회를 향한 방문한 학생에게 전 부총학생회장 **옹일환은 “총학생회는 올해 학교가 건물을 많이 지어야 하기에 등록금 인상안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했다.

아니나 다를까 총장은 3월 9일에 있었던 <한국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1.4%의 등록금 인상안을 학생들도 무리 없이 따라왔다”고 말했다.

부총장은 4월 11일, 등록금 인상 문제로 총장실을 향한 방문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 문제는 이미 학생들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가 “도대체 누가 합의했다 말이나”는 학생들의 추궁에 꿀 먹은 병어리처럼 말을 잇지 못했다.

총학생회는 대자보에서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파업이 터지기 하루 전까지 ‘등록금 마이너스 실천단’을 구성하여 행동”했다며 자신들이 등록금 투쟁을 진지하게 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총



등록금 투쟁은 접고 파업파괴에 앞장선 총학생회

학생회는 2월부터 ‘등록금 투쟁 목표 총학생회 제안서’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구호는 추상적”이라며 등록금 투쟁을 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줬다.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압력에 떠밀려 등록금 마이너스 실천단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등록금 인상 반대 내용이 담겨진 유인물에 동의 할 수 없다”며 마이너스 실천단 유인물 배포를 거부하는 등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의 발목을 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총학생회는 11.4%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은 철저히 무시

하면서 오히려 박철 총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총학생회와 박철 총장의 밀월 관계

작년 총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총학생회는 교수·직원·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민주적 총장 선출을 요구한 학우들의 뜻을 거슬러 교수들만의 총장 선출을 사실상 지지했다.

그 과정에서 선출된 총장이 바로 신입 박철 총장이다. 박철 총장과 총학생회의 긴밀한 관계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에도 총학생회는 여러 공식 행사에서 박철 총장과의 돈독한 우애를 과시했다.

올해 새터에는 사상 처음으로 등록금 인상의 주범인 총장을 초대했다. 새터 자료집에 총장 인사가 들어간 것도 유례 없는 일이었다. 총학생회는 총장 취임식에 가서 총장의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뒤로 하고 신입 총장을 환영했다.

3월 6일 확대운영위원회에선 11.4%라는 고율의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총장의 글을 배포하며 스스로 총장 대변인임을 자처했다.

총장의 노조 파괴 시도 때문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총학생회는 학교 측과 한 편이 되어 노조 파업을 공격하고 노조 파업장을 무력으로 침탈하는 등 파업 파괴에 올인하고 있다.

이런 총학생회가 ‘학습권’ 운운하며 학생들의 편인 양 행세하는 것은 위선이다. 총학생회의 ‘학습권’ 논리는 학교와 유착해 노조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노조 파업을 공격하는 노력의 반만큼이라도 총학생회가 등록금 문제에 열의를 가졌다면 등록금 동결이 가능했을 것이다.

총학생회는 학교와 유착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반민주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등록금 인상에 신음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838명 학우들의 사과요구 서명조차 받지 않은 총학생회 총학생회는 폭력행위 당장 사과하라

4월 11일에 총학생회가 폭력, 욕설을 하고 대자보를 무단훼손하며 파업장에서 난동을 부린 이후 학내외에서 총학생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총학생회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비판하며 학생 80여 명이 자발적으로 연서를 작성해 학내 곳곳에 대자보를 붙였다. “나는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 말을 할 권리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볼테르의 말을 인용한 이들의 주장은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샀다.

학교 밖에서도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52개 시민사회단체가 총학생회의 파업파괴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총학생회의 폭력 행위 사과 및 표현의 자유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외대인 모임(이하 외대인 모임)’이 만들어졌고 곧바로 학생들에게 총학생회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4일 만에 83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학

생들은 “총학생회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학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대자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찢어 버린 것은 정말 잘못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4월 27일 40여명의 학생들은 붉은 광장에서 ‘총학생회의 폭력 행위 사과 및 표현의 자유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후 총학생회에 서명용지와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갔다.

학생들은 2번씩이나 서명용지와 항의서한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총학생회는 838명 학우들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용지를 아예 받지조차 않았다.

사실 838명의 학우들의 요구가 그리 대단한 내용도 아니다. 상대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사용해서 안된다는 것, 상대의 주장이 실린 대자보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총학생회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이런 기본적인 요구를 담은 학우들의 정당 목소리를 무참히 외면했다.

총학생회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대자보를 찢는 것도 의사표현의 하나”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우고, “4월 11일 시위가 평화적”이었다며 뻔뻔스런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이런 총학생회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운동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외대인 모임’은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의 폭력행위와 대자보 무단 훼손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30여명의 대의원들이 이 안건 발의에 참여했다. 표현의 자유 탄압 중단을 염원하는 전학대회 대의원들은 안건 발의에 동참하자.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힘을 보여주자.

총학생회가 다시는 폭력을 저지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벌어질 총학생회 규탄 행동에 많은 외대 학생들이 참가해 외대의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함께 합시다!

1. ‘총학생회의 폭력행위 사과 및 표현의 자유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외대인 모임’에 가입하세요!
학내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을 환영합니다.
011-9744-1561 나 freespeech06@hanmail.net 으로 가입 의사를 밝혀주시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 지지의 글을 보내주세요.
freespeech06@hamail.net 으로 지지의 글을 보내주십시오. 짧막한 글이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자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3. 후원해 주세요.
소액도 좋으니 운동에 대한 지지를 후원을 통해 표현해 주세요.
후원 계좌 : 국민은행
570202-01-027233(여승주)